

정부·행사위 갈등에 상처 입은 '오월 정신'

5·18 35주년 결산

아쉬움 속에 또 5월은 갔다.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는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부활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5·18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하다가 숨진 시민군들의 넋을 기리는 '부활제'에서 산자들은 부끄러움으로 다시 내년을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정신을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애초 목표는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 속에

'반쪽 기념식' 3년째 되풀이...기념재단 노사 갈등도 찬물 '임~행진곡' 프레임 벗어나고 시민주도형 행사 거듭나야

행사 주최 측만의 잔치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35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은 빛을 바꿨다. 민주주의 가치 복원에 힘쓰겠다던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16일 전야제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 등에게 물세례와 야유를 보내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상대편과는 한시도 함께할 수 없다'는 그릇된 시각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도 맥이 같다. 정부와 행사위의 편향적인 사고방식은

35주년 기념식을 들로 쪼개고 말았다. 5·18 기념식 파행이 3년째 이어지는데도, 지역원로나 정치인들은 해결책을 찾기보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프레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5·18 기념재단 노사문제도 5월 행사에 찬물을 끼얹은 한편 5월 정신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내외적으로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지향하는 5·18 기념재단이 분열과 갈등

속에 5월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비춰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추구하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노사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5·18 역사왜곡 및 폄훼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부 세력에 의한 5·18 왜곡 사례는 연중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의 대처는 5월에만 집중하는 한시적인 대처능력을 보였다. 내년 36주년 기념행사는 화해와 협력 속에 정치·이념 등 탈이데올로기적 행사 위주의 시민주도형 행사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올해 35주년 기념행사 기조방향은 이 시대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열겠다는 것이었으나 전야제·민주대행진·광주시민대성회 등 시국 현안에 5월 행사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는 5·18이 5월 관련단체 또는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전유물로, 그들만의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내년 36주년 기념행사부터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탈(脫)정치·탈(脫)이념적인 행사로 추진해 전국화·세계화를 앞당기고 5월 정신을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수사 12명 기소 일단락

비자금 용처 제대로 못 밝혀 '용두사미 수사' 비판도

검찰의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가 정월주(48) 중흥건설 대표이사와 최종만(58) 전 광영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2명을 기소하는데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가 애초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전인 2007년 이전 조성한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만 파악된데다, 이마저도 100억원이 넘는 사용처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계열사 자금 15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정월주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속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한 최종만 전 광영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로 기업 재무상태를 속인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정 대표의 경우 1052억원 규모의 비자금 중 235억원을 횡령하고 배임액도 17억원에 이르는 등 모두 252억원 정도를 불법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80억원) 등 110억원 외 125억원의 사용처를 명쾌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은 또 신대지구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로부터 1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광영경제청 행정 개발본부장 고모(56)씨와 신대지구 개발업체인 순천에코벨리 취득세 감면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로 신모(54)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최종만 전 광영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순천 신대지구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지난 2011년 3월과 7월 1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광영경제청 기증지원 부장 박모(63)씨도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의 전 국제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김모(64)씨에 대해서도 국제청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2억원(변호사법 위반)을 중흥건설로부터 받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고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 대표 박모(51)씨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허위감사를 실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보이스피싱, 오전 시간대 20대 여성 노린다

광주 여성 피해자가 62% 울들어 188건으로 급증

'보이스 피싱은 오전 시간대에 광주지역 20대 여성들을 노린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서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 분석 등을 거쳐 은행 등과 대대적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애초 은 서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도 시급한 형편이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는 지난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79배나 급증했다. 울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188건(대출사기 109건·보이스피싱 79건)의 전화 금융사기가 발생, 전년 같은 기간(94건)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광주청은 또 올 들어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68명)를 조사한 결과, 여성 피해자가 42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피해자가 21명(30.8%)가 많았다고 파악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범죄 발생시간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오전 9시~오후 12시 사이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출사기 범죄는 오후 12시~오후 3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대한 분석을 거쳐 금감원, 12개 시중은행 등과 예방 캠페인 활동에 나서는 등 홍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26일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한 정모(32)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5장의 통장 등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기고 5000만 원을 받아 갹긴 혐의다. /박기용기자 pboxer@



논갈이 들녘 황로는 즐거워 26일 모내기를 앞두고 논갈이가 한창인 광주 시 북구 건국동 들녘에서 트랙터 뒤로 황로떼들이 몰려들어 땅속의 벌레 등 먹이를 먹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내 시한부 판정에... 남편 농약 음독 사망 광주 계림동서

50년간 함께 산 아내의 시한부 판정 소식을 들은 70대 노인이 극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4일 자정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신모(77)씨의 주택에서 신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곁에선 농약병과 소주병이 발견됐다. 신씨는 4시간 전인 전날 밤 8시께 아내 김모(74)씨의 담당의사로부터 "(아내가)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듣고 병원을 나섰다. 신씨의 아들(43)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원에서 나간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툭 끊길래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갔더니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계셨다"고 진술했다.

목수 일을 했던 신씨는 50여 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편 신씨가 아내의 병 수발을 드는 아내 가족들에게 "아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등 애처가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아버지는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커졌고, 두 분 금슬도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좋았다.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아서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김씨는 남편의 죽음을 듣지 못한 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절도 50대대 약봉지에 달미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지갑을 훔친 50대 여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약봉지가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달미. ○...26일 광주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56)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광주시 관산구 월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유모(16)양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3만원이 든 종업원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손에 '○○약국'이라고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끝에 범인이 다녀온 약국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김씨를 검거.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 경매!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경매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임대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전대 병원 화순 자애원 동면
성심 장례식장

광덕교차로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